주요개념 : 시집살이, 현메논연구방법

한국중년여성의 시집살이 경험

한 혜 실* · 김 애 정** · 양 복 순***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부분의 한국 여성은 결혼하게 되면 시댁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어 시댁의 낯선 문화적 차이와 구성원들간의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잘 참고 지내는 것을 한국 여성의 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최근 급변하는 가치관변화의 영향으로 이혼율도 높아지고, 시부모의 학대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양경미 2003).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여성은 결혼과 더불어 시댁의 문화적 차이에 적응과 및 시댁구성원들 특히 시어머니와의 적응이라는 심리적 부담감과 어려움을 겪게되는데(이점숙 외 2000) 이를 시집살이라고 한다.

한국 기혼여성의 시집살이의 어려움의 정도는 다양하나 한국과 같은 가족중심적인 가족제도에서 시집살이는 한국 기혼여성이 경험해야하는 부담되는 부분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으로 대두되는 것은 고부관계로서 이는 시어머니의 전제와 이를 말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며느리의 어려움에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고부관계의 구조적 원인으로는 가부장적 부계가족으로 권력 분배면에서 전제권을 시어머니에게만 주는 관습을 지적할 수 있다. 그래서 전제권을 휘두르는 시어머니 앞에서 새 며느리는 취약한 처지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게된다. 그러나 새며느리가 그 가족의 일원이 되기위해서는 어떤 불합리한 처사라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감내하며 속으로 삭히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오는 스트레스나 불만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이러한 인고의 세월을 '시집살이'는 '벙어리로 삼 년, 장님으로 삼 년, 귀머거리로 삼 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속으로 감내하며 삭혀온 불만의 불씨들이 훗날 자극받게 되면 강렬한 화염을 불러일으키는 부 적응행동패턴으로 발현되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시집살이'란 젊은 새 며느리에게는 두려운 것으로서 인식되고, 시부모와 동거하는 3세대 직계가족

* 여수간호대학교 교수
** 여주대 간호과 조교수
*** 여수간호대학교 전임강사
교신저자 한혜실 : han@mpu.ac.kr

의 형성을 기피하는 현상의 요인의 하나를 이루게 되었다(신용하, 장경섭, 1996). 이와 같은 시집살이, 고부간 갈등 등은 한국문화에서 매우 독특한 현상이며, 시집살이의 가장 큰 현상으로 나타난 스트레스와 관련된 정신의학적 증후군(Culture-bound Psychiatric Syndrome)(민성길 외, 1991)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중년여성이 되어 신체적 심리 · 사회적 변화와 맞물리면서 이와 같은 가족관계의 갈등 증상이 극대화되기도 하였다(이시형 외, 1989).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 무엇보다도 문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우리문화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시집살이 경험의 본질이 무엇이며 시집살이가 중년여성의 건강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구나 서구가족이론으로 시어머니와 동거해온 한국 중년여성들의 갈등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부모를 모셔본 한국 중년여성들의 경험의 본질을 파악함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문화에 기초한 지식이 요구된다(Leininger, 1994).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시집살이에 대한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10년 이상 시집살이를 경험한 여성의 체험을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시집살이의 본질을 탐색함으로써 그 의미를 찾아 대상자에게 적절한 질적 간호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한국 기혼여성의 시집살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중년여성의 시집살이 경험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한국적 가족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며느리의 시집살이 경험을 보다 깊이 있고 폭넓게 이해하는데 있다.

3. 연구문제

중년여성이 경험하는 시집살이는 어떠한가?

4. 연구자의 준비

질적 연구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연구자 자신이므로 연구의 질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방법을 익히기 위하여 대학원 과정에서 질적연구방법론 3학점을 이수하였으며, 국내에서 개최된 재니스 모스의 질적 연구 단기강좌(16시간), 밴 매넌의 현상학 단기강좌(16시간)에 참석하였고, 매달 1회씩 개최되는 한국질적연구센타의 강좌에 참여하여 질적 연구방법론에 관하여 학습하였고 질적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학위논문을 썼다.

Ⅱ. 연구 방법 및 결과

1. 방법론적 배경 - 밴 매넌(Van Manen)의 현상학적 연구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시집살이를 체험한 여성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상학, 해석학 그리고 언어학을 종합적으로 사용한 밴 매넌의 연구방법을 따랐다.

간호학의 대상은 통합된 전체로서의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이해를 위한 총체적인 접근에 밴 매넌의 방법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해 밝혀진 인간 체험의 본질은 대상자 중심의 간호에 큰 기여가 될 뿐더러 인간에 대한 인식과 통찰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간호 지식 체를 증진시키리라고 생각한다.

2. 체험본질의 집중

1) 중년여성의 시집살이에 관한 현상 지향과 현상학적 질문형성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시집살이 경험에 관한 체험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체험의 구조를 발견하는 것이다. 중년여성의 시집살이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중년여성의 시집살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어떤 경험을 했는가? 시집살이 경험은 여성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등과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그 현상에 몰입하고자 한다.

2) 한국 여성의 시집살이에 관한 가정과 선 이해

현상학적 분석의 1단계는 판단중지이다. 판단중지 단계에서는 선입견을 제거하고 명확성을 얻는 것이 필수적이다(신경림 역, 1994). 따라서 연구자는 이해, 믿음, 편견, 가정, 전제, 이론 등을 명백히 하여 그것들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현상의 본질에 더욱 접근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부모와 함께 사는 며느리의 시집살이에 대한 개인적인 편견, 가정, 이론 등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1) 중년여성이 경험한 시집살이는 힘들었을 것이다.
(2) 시집식구는 서로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므로 아무리 노력해도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3) 오랜 시집살이의 경험으로 시부모와 며느리는 상호간의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3. 실존적 조사

1) 연구자 자신의 경험기술

현상학적 탐구는 개인의 경험을 출발점으로 하여 연구자 자신의 생활 경험을 직접 접근할 수 있다. 나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일 수 있으므로 현상학자는 특정한 경험적 의미들을 반성적으로 인식하고자 한다. 어떠한 현상에 관한 자기 자신의 경험 구조를 인식함으로써 연구자는 현상에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의 기타 단계들에 접근하기 위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신경림 역, 1994). 연구자 중 한 사람의 경험적 기술만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시집살이'하면 중년여성인 지인의 시집살이 경험 이야기가 생각난다. 결혼이후 줄곧 시어머니와 동거하면서 쌓인 마음의 응어리를 심중의 쌓아놓기만 했다. 배우자의 특별한 배려로 마련한 단 둘이만의 여행을 통하여 살아온 지난 이야기를 흘가분하게 서로 터놓게 되었다한다. 엄하신 시어머니와 동거하면서 마음한번 펴보지 못하고 살아온 자신 삶에 대하여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는 서러움을 3일밤 동안 눈물을 쏟으며 남편과 나누었노라고 말하였다. 명랑했던 자신의 성격변화와 끊임없는 신체적 증상호소로 병원에 다녔던 일을 생각해내며 그저 시어머님이 하라는대로 숨을 죽이며 살아왔던 삶의 회한을 쏟아놓았다. 이러 간접경험과 연구자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생각해볼 때 시어머니와 동거는 며느리에게 부담으로 와 닿아 며느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가족의 역동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많은 의미를 내포할 것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중년여성들의 시어머니와 갈등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다.

2) 연구 주제 관련의 추적

체험과 생생한 연관을 갖고 있는 본래적인 생활형식과 만나도록 어원 추적과 현상학적 문헌을 참고하였다.

(1) 어원의 추적

본 연구에서의 어원은 한국민속대사전(1991)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996), 인터넷에서 추적하였다.

① 시집살이 : 여자가 다 자라서, 새로이 남편의 집으로 가서 내 집으로 삼고, 남의 부모를 새

로이 내 부모로 섬기고 산다. 즉, 새집(시집)가서 시아비-시어미를 모시고 산다. '장가든다'고는 하는데 '시집든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신랑이 신부집에는 잠시 들지만, 신부는 신랑집에 가서 계속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6).

여자는 결혼이란 것이 단순히 아내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결혼과 함께 친정에서 출가외인으로 인정되고 남편을 따라 시가의 한 구성원이 된다. 이런 결혼의 개념은 '시집간다' '시집보낸다'는 말로 나타내고 있다. 여자가 결혼으로 시집의 가문에 들어온 것은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것은 부차적이고, 시부모를 잘 모시고 시가의 대를 이어주는 아들을 낳아 주는 것을 일차적 의무로 요구된다. 시집의 가정생활이란 새로 들어온 며느리에게는 일방적인 순종과 인내만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며느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난의 생활은 시집살이란 말로 표현되고 있다(임동권, 198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요즘에는 시집살이하면 고되고 어렵고 구속이 심하고 지긋지긋하고 부자유한 생활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 시집살이의 배경은 조선시대로 보고 있으며 봉건사회의 부산물로서 철저한 남존여비와 효도지상의 유교윤리 그리고 가난과 조혼의 풍습 등 사회적 병폐 속에서 생겨났다.

② 며느리 : 아들의 아내를 일컫는 말, 한자어로는 子婦라 한다. 며느리의 옛말은 '며느리' '며날'이었고, 지방에 따라서는 '며나리, 며누리'라고 일컫는다. 혼례후 신부가 폐백을 가지고 신랑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뵙는 절을 올리고 나면 며느리의 지칭을 받게된다. 이로부터 신부는 시부모를 친부모와 같이 섬겨야 하며, 흔히 망해온 출가외인으로 평생을 시집식구가 되어야 한다. 친부모도 시집가는 딸에게 '죽어도 시집의 귀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2) 관용어구의 추적

송재선(1995)의 [여성속담사전]에 수록된 시집살이 경험과 관련 된 속담을 통해 시어머니에 대한 속담과 그 뜻을 조사하였다.

① 고된 시집살이

- 나뭇잎이 푸른들 시어머니처럼 푸르랴 : 나뭇잎이 푸른 것은 부드럽기나 하지만, 시어머니의 푸르름은 고추같이 맵기만 하다는 뜻.
- 시어머니 심술은 하늘에서 타고난다 : 어느 시어머니나 심술이 많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라는 뜻.
- 벙어리 삼 년, 장님으로 삼 년, 귀머거리로 3년, 시집살이 살고 나니 머리에 미나리 꽃이 만발한다 : 옛날 시집가서 벙어리로 3년, 장님으로 3년, 귀머거리로 3년, 시집살이 9년을 하고 나니 머리가 미나리 꽃처럼 백발이 되었다는 뜻

② 시어머님을 닮아가는 며느리

- 사나운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며느리가 사나운 시어머니 된다 :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윗사람은 아래 사람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뜻
- 시집살이를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집살이를 더 시킨다 : 시집살이를 해 본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집살이는 안 시켜야 할 텐데 더 시킨다는 뜻

③ 기타

- 시어머니가 미우면 남편도 밉다 : 여자는 시어머니에 대한 분풀이를 남편에게 하게 된다는 뜻
- 시어머니가 모이면 며느리 흉보고, 며느리가 모이면 시어머니 험담한다 : 예전에는 시어머니들이 모이는 안방에서는 으레 며느리 흉보

는 것이 일이고, 며느리들이 모이는 우물가에서는 언제나 시어머니의 험담을 한데서 유래된 말

- 한집에 한평생을 살고도 시어머니 성도 모른다 : 한집에서 오래 살고도 시어머니 성을 모를 정도로 집안 일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뜻
-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 :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람의 처지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자의 말을 들고서 판단해야 한다는 뜻

(3) 표본추출

연구 참여자는 한국의 서울과 중소도시에서 10년 이상 시집살이 경험이 있는 중년 여성 6명이다. 연구 참여에 관심을 나타낸 6인을 선정하여, 참여자가 원하는 면담시간과 장소에서 면담하였다. 10년 이상 시집살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한 이유는 우리나라 속담에 시집살이를 잘하려면 벙어리 삼 년, 장님으로 삼 년, 귀머거리로 3년이라는 고행의 10여 년을 묵묵히 견뎌내야 한다는 속담이 있기 때문이었다.

(4)자료수집

현상학적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확한 서술이며, 상황 그 자체가 서술되어야 한다. 현상학자들에게는 경험의 세계를 서술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을 알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연구자가 면담하였고 테이프로 녹음하였다. 심층면담은 2002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루어졌다. 면담은 개방적이고 폭넓은 질문으로 '시집살이의 경험은 어떠하였습니까?"로 중년여성의 시집살이 경험의 서술을 이끌어냈다. 면담은 즉시 녹음하여 연구자의 윤리적 보장을 위하여 면담자가 직접 필사하였으며,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면담, 속담, 이야기 등에 대한 자료분석은 주제의 구조, 공동주제, 현상의 의미와 본질을 밝히는 핵심적 주제를 확인하기 위해 Van Manen의 방법을 따랐다.

(5)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Guba와 Lincoln(1981)에 따르면, 질적인 과학 연구의 방법론적 정확성을 결정하기 위해 4가지 논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이다.

사실적 가치는 경험에 대한 서술이 경험을 한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것인가가 일차적인 고려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참여자의 결과가 신뢰성에 일치했음을 발견하였다. 타당성에 대한 두 번째 검증은 연구상황이 외부의 맥락에서 자료의 '적절성(fit)'에 의해 평가되는 질적 연구에 대한 적용성이다. 결과에 대한 일관성은 자료 수집과 타당도에 기여하는 예술 작품에 대한 실존적 연구의 다양한 방법에 의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면담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내용과 일치하였으며 연구를 마친 후 면담자에 의해 확인되었다. 문학, 드라마에서의 실존 조사에서도 결과의 일관성이 발견되었다. 이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위한 실존적 검증은 개인적 또는 전문적인 현상에 대한 경험을 한 사람에 의해 행해졌다.

중립성은 연구과정에서 편견으로부터의 자유와 관련된다. 연구과정에 대한 기술과 명시를 통해 연구자는 개인적 편중을 판단 중지하고자 하였다.

(6)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참여자에게 제공하고자 면담 초기에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서면화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자는 연구 동안 어

느 때라도 철회할 수 있다는 정보를 참여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자와 참여자간의 신뢰성을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7) 문학 및 예술 작품에 나타난 시집살이

우리나라 시집살이와 관련된 문학과 예술작품으로 시집살이 경험을 주제로 한 TV드라마를 인터넷검색을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시집살이 노래 연구, 서영숙(1996)>,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배용 외(1999)> 그리고 시집살이와 관련된 속담 집, 민담 집, 민속사전, 백과사전 등의 여러 책자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얻을 수 있었다.

① 민요

어떤 시집살이든 간에 시집살이가 다 힘들다는 것을 노래로 말하고 있다. 시어머님의 서슬 푸른 기를 푸른 나뭇잎도 이에 당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어머님의 기에 억눌려 시집살이의 고달픔을 먹기만 하니 눈물이 나고 속이 얼얼한 매운 고추와 같다고 비유하려 하였다.

가. 수수목 노래

칠팔월 수수목에는 철이나 알고 흔들건마는
우리 집 시어머니는 철도 때도 모르고
날잡고 흔든다.

나. 청천하늘 노래

청천 하늘에는 잔별도 많고 세내 갱변에는 자갈도 많고
이내 시집살이 말도나 많고 뒷밭에는 후초 숭거
앞밭에는 고치 숭거고치씨가 아무리 맵다한들
요내 시집살이보단 더 매울거냐

다. 벙어리 삼년, 귀먹어 삼년 노래

벙어리 삼년 귀먹어 삼년
석삼년을 살고나게 미나리꽃이 피었구나
시금시금 시어머니 내작속치고 벙어리를 댓고 살었나고
데려다 주라고 해서 인작 가매를 태워서
아랫방에 하인들아 어서 베삐 새아씨를 모셔다드려라

라. 방귀타령

이보다 더 힘들고, 서러운 것, 곧 시집살이를 고추보다도 맵게 만든 것은 바로 시집식구들과의 갈등이었다. 시집식구들은 항상 어렵고 두렵기만 했던 존재였다. 그러나 시집식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부모 눈에 나지 않고 살림도 잘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평가받는 척도이자 친정 가문의 명예가 걸린 일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기혼 여성들은 자신을 죽이고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참아 이겨야 했다. 다음의 방귀타령은 며느리가 시집식구들과의 사이에서 겪는 갈등과 불만을 노출시킨 것이다.

시아버지 방귀는 호령방귀 어머니 방귀는 요망방귀
시누씨 방귀는 고자질 방귀 며슴 방귀는 마당방귀
남편의 방귀는 풍월방귀 요 내 방귀는 도적방귀

② 한시

친정과 달리 질서와 규칙이라는 보이지 않는 제도에 메인 삶을 보여주고 있다.

한식경에 일어나 머리 빗고 오경엔 어른께 문안하니
친정에 돌아가선 먹지도 말고 한낮토록 잠자리

③ TV 드라마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시집살이와 관련된 작품은 많이 접할 수 있다. "보고 또 보고"에 나타난 드라마의 대본에 나타난 시집살이 경험이 있다.

S#1 가정집 할머니 방

할머니 : 은주가 너 시집살이 시킨다든 ?

지 여 : 같이 사는 거 자체가 정신적으로 부담이죠 옛날 같지 않구 직장 다니는 며느리 보면 살림 집구덕 시어머니 몫이잖아요

할머니 : 아 며느리가 남이냐 ? 돈벌어 살림 보태구 재산일구구 살겠다는데 멀쩡한 몸으로 왜 못 도와줘 ? 부모가 돼가지구

지 여 : 기점이 기풍이한테두 늘 그랬어요 며느리들 저처럼 안살린다구요. 따루살림내준다구

할머니 : 너처럼 산게 어떤건데 ? ..한평생 시집살이루 곯았다구 ?

지 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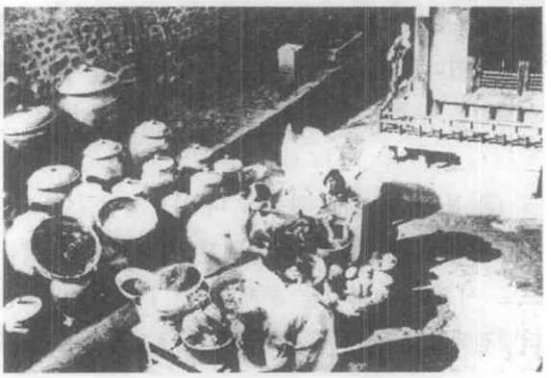
할머니 : (좋게)인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삼십년 세월 어멈 애쓰구 힘들었든 거 모르는 거 아냐. 알어... 꽃다운 청춘에 시집와 낼 모레 육십인데 나는 아직까지 살아있구..

지 여 : 참 어머니두

할머니 : 살림은 줌 컸어, 이제 겨우 한가해진거지... 바쁘구 사람 좋아하는 시아버지 모시느라 허구한날 손님치닥거리에, 차려낸 밥상 아마 치구 열두바퀴 돌구두 남았을거야 ?.... 매무새 편하게 호트릴 수 있었나 큰 소리 한번 마음껏 칠 수 있었나... 그 고충 왜 몰라

④ 풍속도와 사진에 나타난 시집살이

우리나라 풍속도에는 시집살이의 한숨과 친정에 대한 그리움과 시집살이의 힘듦과 어려움이 나타나 있다.



⑤ 문 헌

가. 한국 가족의 특성과 시집살이

가족이란 집단은 모든 인간이 그 속에서 태어나서 하나의 인간으로 성장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사회집단이다(박금순, 1982). 한국은 일반적으로 '가족주의'가 매우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인들에게 있어 '가족'은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중심원리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가족은 보편적 의미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 개개인의 삶의 중심 축으로서 사회문화의 중심원리가 되고 있다(신수진, 1998).

가족은 결혼을 통하여 형성되는데 이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나 우리 전통사회의 여성에게는 결혼과 함께 여자의 생가로부터는 "출가외인"이 되고, 남편을 따라 시가의 한 성원이 되는 것이었으므로 "시집간다"로 표현하게 된 것이었다. 더구나 며느리의 시집살이 과정은 새로운 인간관계의 재편성인 것이 아니고, 완전히 며느리의 일방적인 순종과 인내에 의한 재 적응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시집살이"란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었다(박금순, 1983). 이와같이 결혼으로 여성은 남편을 매개로 이미 존속하고 있는 시가에 편입되는 것이지만 며느리의 첫째 의무는 시부모를 봉양하고 특히 최고권위자인 가부장에게 충실하는 것이었다. 또한 며느리에게 가장 어려운 사람은 시어머니로 둘 다 외부에서 편입한 여자이지만, 동일한 입장에서 지위성취의 경쟁자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양자는 부정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족이라는 생활공동체가 유지되려면 권력의 균형을 이루는 견제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여성이 가장권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한다. 주부의 중요한 권력은 첫째 주부가 소유하는 열쇠로 이것을 열쇠 권이라 하며 둘째는 자녀에 대한 것으로 주부가 시어머니가 되어 며느리를 두게 되면 며느리를 지휘 감독하는 것이다(이광규, 1994). 이런 가족환경 속에서 며느리는 외 집단의 사람으로 취급되어 취약한 처지에서 스트레스나 불만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모든 불만과 고통을 팔자소관으로만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시집살이'는 '벙어리로 삼 년, 장님으로 삼 년, 귀머거리로 삼 년'을 산다는 인고의 세월일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내재된 불씨들이 훗날 자극 받게 되면 강렬한 화염을 불러일으키는 부적응적 행동패턴으로 발현되었다(신용하. 장경섭, 1996).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시집살이에 대한 두 가지 해결방안이 있는데 첫째는 사회적인 윤리 즉 상하 질서로 장유유서를 내세우고 며느리로 하여금 시어머니에게 복종할 것을 강요하였으므로 며느리도 연로하면 시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커다란 위로가 되었다. 둘째는 며느리들이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면서 또는 들에서 김을 매면서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압박과 설움을 민요를 통하여 표현하여 노래하면서 동병상련의 아픔을 공유하였다. 들일이 없는 도시에서는 며느리들이 무당에게 가서 대를 잡고 미친 척하고 춤을 춰버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시대는 가부장제 가족은 여전히 존재하나 스트레스 해소의 장소가 없어진 현대사회에서 시집살이로 인한 갈등과 스트레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이광규, 1994).

4.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

현상학적 반성은 주제분석과 본질적 주제결정의 두 단계를 포함한다. 주제 분석의 단계는 생활세계에서 묘사된 주제적 측면을 노출, 주제 진술 분리, 언어적 변형 구성, 예술 작품에서 주제 진술 수집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테이프에 녹음한 후 옮겨 적고 정당성에 관한 관계를 토의하고 추가하고 또는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 주제를 확인하였다.

1) 한없는 마음 고생으로 삶이 힘듦

참여자들은 결혼하여 집안간의 문화적 차이에 적응하기도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남편 하나로 인하여 가치관이 다른 생면부지의 남편의 식구들을 내 식구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을 갖게 된다. 게다가 남편의 어머님이라는 이유로 비합리적인 시어머니의 언사 에 말대꾸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마음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언제 이 마음 고생과 힘듦이 끝날 것이라는 기약이 없으므로 더욱 부담이 된다.

(1) 속이 뒤집히고 기가 확 막힘

여자가 과년하여 짝을 만나고 결혼이라는 예식을 하고 시댁에 들어와 살게된다. 당신보다 더 교육을 받은 며느리에 당신의 기가 눌려 이제껏 가정의 안살림을 주관하던 주도권을 빼앗기는가 두려워하여 매우 타당하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한 일방적인 이해로 인하여 꾸짖으시고 오기를 부리시는 시어머님에 대하여 대꾸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아야만 하였다.

(전략) 나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 시어머니가 뒹굴기 시작하는데, 무시했다 이거야 우리어머니가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있던 판이었어 근게 이놈 자식이 무시했다 그거야 나도 친정이 괜찮게 살았다 근데, 무슨 자기 엄마외가를 들먹이는 거야. 친정이 그거하니 이것들이 무시한다 이거야 뒹굴며 울며 그래 갖고, 나는 놀라 가지고, 떼굴떼굴 굴러 ...창고

방에 가더라고 쌀가마니를 붙잡고 아버지 아버지하고 우시는 거야 막 코피를 쏟아. 막둥이 아들이 와서 왜 그러냐고 그러지. 세상에 아버지 딱 내가 친 적이 없어서 무시한다고 그런거여. 나 뭔 소리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중략) 아침에 보니까 온 식구들이 다 온 것이야 큰집 작은집...(중략) 내가 새 며느리 얻어서 이렇게 속이 상한다고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꼬투리를 잡은거지...(중략) 나를 붙잡고 그려 네가 잘못했다고 빌으래. 나는 참 어상하지 잘못한 것도 없고...(.중략)...큰 어머니랑이 새애기 네가 그도 잘못했다고 빌어야지...(중략) 시어머님이 식사를 안혀 그날부터 xx에 가서 주무시는 거야 아니 그냥 말을 안해..(중략)그렇게 하고는 못할 것 같아 그려서 잘 했든 잘못했던 빌으래.(중략) 아이구 내가 뭐 잘못했는가 막 울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중략) 오늘까지 잘못했다고 안 하면 내일 토요일에 집을 싹 싸어 보낼라고 그랬다고(참여자 1)

나도 다른 사람 에기 귀담아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나 그 말 가지고 언제 내가 누구 막 돋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사랑을 대라는 거야 그리 갔고 집안 분위기가 ...(중략) 야 내 아빠가 퇴근해 갔고 오니까는 막 들어서는 사람한테 막 니가 먼 소리 했냐고 막 내가 남의 소리를 듣는다고 그러냐고 막 대라고 그러니까(참여자 3)

(2) 책 잡히지 않으려고 애쓰며 인고함

우리 어머니 화를 내고 성화를 내고 그러는지 열심히 하려고 아침 6시 되면 우리어머니 일어나 우리 어머니보다는 조금 일찍 일어날라고(참여자 2)

내가 맨날 잠이 부족하지...(중략) 아침부터 막 동동거려야지...심부름해야지 우리어머니 당뇨에다 간염에 다... 미나리 그 놈의 불 미나리 그냥 손이 곱아 그놈의 불미나리 씻는 것 말도 못혀 지금은 녹즙기라도 있지 그 때는 절구에다(참여자 1)

처음 상사개원은 죽겠더라고 모든 것을 순종하고 모든 것을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일방적인 환경에 들어왔다는 내가 싫더라고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환경 속에 내가 들어 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따라 가주어야 하잖아 내 쪽으로 끌어오기는 이미 파워게임에서 진 싸움이잖아(참여자 6)

2) 구속감을 느낌

이미 시어머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곳에서 더구나 남자를 더 중요시하는 우리네 문화 속에서 아들 가진 권세를 부리시는 시어머님 앞에서 좋네 낫네 말 한마디 못하고 혹 한다하여도 그냥 무시해버리시고 자신의 의견이 관철 안되면 들어 누워버리는 시어머님 앞에 무엇하나 맘대로 할 수 없는 구속감을 느낀다.

(1) 웃어른 눈치를 봄

애들 키울 때 정말 마음에 안들 때가 많았어 자기 손주라고만 생각만 하고 며느리 자식이라고 생각 안혀 우리 큰아들 경우는 옷 하나 사는 것 머리 하나 깎는 것도 내가 못하게 하고 다 당신이 사 입히고 머리도 다 당신이 데리고 다니면 서 깎이고.....(중략) 내가 어쩌다 내 큰아들이니까 하나 사면 어디서 눈이라고 이런 것을 사왔냐하고 딱 어디다 집어 던져 놓고 입히지도 않고 갖다줘라 나는 이런 것 안 입힌다....중략 내 손으로 멋하나 사 입히고 나한 테는 바보같이 샀다고 그러고 어디 갈 때 당신이 안고 가고 내가 안을려고 하면 너보다 더 나를 좋아혀야 그리고 당신이 내 손을 뿌리치고 안고 가시고(참여자 5).....

첫 아이 낳고 황달 치료기에 애기가 들어 갔잖어

하루 더 있었어 산모는 괜찮고 애기는 황달기가 있다고 그랬더니 xx에서 알아보니까 괜찮으니까 퇴원하라는 거야 그날로 오라는거야. 시어머니가 친정식구는 병원에 오도 못하게 했어. (중략) 각서를 쓰고 애기를 데리고 올라니까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 생 애기가 무슨 이상이 있다 이거여 빨리 데리고 와야 한다는 거야....(참여자 1).

우리 집은 1/2이 쓰레기통에서 살장아 내가 보기에 다 버릴 건데 버리지 못하고 제일 힘들었던게 가족들과 외식한번 못해본 것..(중략) 우리 시어머니가 미국에 딱 한달 계실 때 한 달도 안 계셨어 내가 생각에는 한 3-4개월 계시지 한 달도 몇 일 남겨놓고 혼자서 일하다가 끝냈지 뭐 버리다가 끝냈지 뭐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자유를 누려본 것이야

아침에도 눈치보면서 어머니 표정부터 살피는 게 어머님 기분이 좋으시면 아 그냥 나도 모르게 오늘 하루 기분이 좋겠구나하고 ....(중략).... 어머님이나 아버님으로 인해 집안 분위기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좌지우지 돼 버리잖아....(참여자6)

이 나이 먹어서 어머니 눈치만 보느냐고 딱딱 말해 버려라하지만 우리어머니 스스로 병나 버려 그래서 누워 버려 ..(중략) 이 나이까지도 남편 옷은 당신이 넥타이 양말까지 챙겨야 직성이 풀려 남이 사오면 항상 탓을 해 ..... 나는 처음으로 아이 갖으니까 내가 옷도 골라주고 싶은데 내 의견으로만 사면 서운해 하셔.....(참여자 4)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고가 다르니까 물건을 내 맘대로 해놓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아기자기 이쁘게 해놓고 싶은데 우리어머니를 보면 이런 것 보면 쓸 데 없는 지출이고 쓸데없이 늘어놓는다고 치우는 것 버리는 것이.....(중략) 내 환경 내 맘데로 바꿀수 없는 것(참여자 3).

(2) '나'라는 존재가 희미해짐

어떤 것 하나 하더라도 내 의지 내자유가 없는 것이 제일 크지. 어찌 보면 지금도 우리 어머님 가구배치 딱 거실에 뭐하나 옮기는 것도 전혀 손 못대게 하셔.....(중략) 내자유의지 대로 할 수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져...(참여자 5)

그러니까 같이 살려고 하면 서로가 많은 부분에서 이해가 되야만 하고....(중략) 포기하는 게 굉장히 많지.....(참여자 4)

어머니가 너무 권위적이니까 권위적인 것 안 먹혀 들어가면 딱 신경질을 내는 거야. 화를 내시고 신경질을 부리시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편하려고 어머니 성격에 따라 줘야 되고 어머니 의견을 따라 가야돼.(참여자 1)

너무 내주어야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고요해 나쁘게 말하면 침체되었고 ....(중략) 모든 것을 내가 포기 해야할 것은 포기해야하겠다고....(중략) 마땅히 포기 해야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참여자 6)

(3) 나만의 공간을 그리워함

시어머니 살림에 큰 형님이 와서 사니까 이건 시어머니 살림이다 하면서 왔다하면 둘둘둘 다 뒤지고 막 달달달 다하고 다하는거야(참여자 1).

이게 시어머니 한 분을 모시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산다면 그 뒷분들 하여 공개된 생활이야....(중략) 나는 따로 방이 있었던 게 아니라 ....(중략)거실이 추우면 방으로 다 들어오고 막 오면 화장품도 다 쓰고 옷도 다같이 입고 근게 이 공개된 생활에서 정말 못견뎌겠더라고 비밀이라고 없어 남편하고....(참여자 6)

나 혼자 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하고 사는데 늘 시댁식구에다 시누 식구까지 와 버릇하면 한갓진 생활을 못해. 이런 게 전혀 없었어 가면은 날선 사람이 워 좋아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오는 사람들 싫더라고..... (중략)..... 한갓지고 조용하게 살아볼 싶은데 한갓지게 살아 본적이 없으니까 나같은 경우 힘이 없고 ..(참여자 4)

3) 고독감이 절절히 감지됨

분명히 일을 할 때는 한 식구인데 중요한 일이나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어느새 분명한 선으로 같은 식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몸은 같이 살면서 동상이몽을 하는 가운데 홀로라는 생각이 들어 고독함을 느낀다.

(1) 극적인 순간에 소외감이 듬

아들한테 다 일러가지고 막 이르니까....(중략) ...(참여자 4)

남편도 따지고 보면 넘이잖아..(중략) 어찌네 어찌네 해도 시동생은 다 저네 엄마 편이니여 거기서 나 혼자 이방인 같았어(참여자 2).

집에서 주무시면 잠안온데 갑자기 근다고 시누네 집에 가서 자고 아침 출근 타고 오셔.... 딱 이틀저녁밥을 드셨지 그러니까 나는 좋았지 그런데 사흘되는 날부턴 안가시더라고 그러고는 빨리 밥을 달래야 밥 먹고 간다고 글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다 퇴근해갔고 와가지고 나 때문에 밥 준비하고 하면 ....(중략)힘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간다고나 막 퇴근해갔고 들어오자 마자 빨리 밥을 준비하라고...(중략) 잠만 주무시고 아침도 안 드시고 오셔 그리갔고 집에 와서 아침을 드시고 그러니 내가 자꾸 서운한 생각이 자꾸들어 ..(참여자 6)

어머니도 나를 늘 딸처럼 생각한다고 생각해서 생활을 했는데 아가씨가 시집을 감으로 해서 아 나는 딸이 아니고 며느리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되고..... 뭐든지 내가 며느리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고 뭐든 외톨을 딸하고만 하는 거야... (참여자 5)

(2) 하나 될 수 없음에 대한 서운함이 생김

내가 아퍼서 열이 나고 목에다 힘 못 주고 그러면서도 일어나서 밥을 해도 어른들은 ....(중략)아퍼도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밥을 한다고 하는 거야..... 나는 아람곳하지도 않고 큰아들 김치 담그는 것 걱정이야....(중략) 그런 것이 너무나 서운하더라고 그렇지 않아도 당신 큰아들 줄려고 김치 많이 담그는데 그냥 당신이 금방 올라가서 시숙 줘야한다고 김치통을 찰아 왔더라고 내가 어려니 알아서 줄라고.....(참여자 1).

시누 문제 때문에 어머니와 관계가 악화되었지 시집식구라는 것이 결국은 잘해드려도 한 번잘 못하면 그냥 그게 다 저기되어 버리니까(참여자 4).

그러니까 그런 핏줄이야 피가 안 섞여서 그런 것 같아요 손주한테는 너무 맹목적으로 하니까.... 확실이 그 차이지 남이잖아 생판 남이야. 친정엄마는 조금 모아놨던 거래도 좀써라 그러는데 시어머니는 안 그래... 딸한테는 시집가도 하잖아(참여자 5).

하여튼 .... 애기 놓을 때까지 저녁에 밥을 해먹고 갔으니까 배가 불러도 어머님 입장서보면 본인이 저녁을 해먹는다던지 그게 며느리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해이해 질까봐 그런게 자꾸 쌓이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힘들고(참여자 6).

4) 뒷심이 세월 따라 두둑해짐

참고 견디며 내 의견하나 펴지 못하고 행여나 시어머님 심기를 상하게 할까 눈치를 보며 살아왔으나 어느 날인가 같이 늙어 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잘사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고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날로 연로해지시는 시어머님에게 측은지심이 발동하는 반면 이제 좋아내기야 하겠나 하는 생각에 뒷심이 두둑해져서 쭈빗거림 없이 자신의 의견을 펼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8년 정도까지는 내가 어머니한테 순종하고 살았지 ...8년 동안 정말로 말대꾸한번 안하고 살았는데 시누가 시집가면서 계기로 인하여 그렇게 하니까... 그 뒤로부터는 내 목소리를 더 내게 되고 ....(참여자 4)

나이 먹으니까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를 하고 그지..... 전에 의식이 있었어 가는 길에....(중략) 어머니 왜 그렇게 나를 시집살이 시켰냐고 물어봤어 (참여자 1).

5) 한데 어우러짐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이리 깨끼고 저리 깨끼고 어느덧 두리 뭉실해져서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서로 닮아가게 됨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포기할 것은 포기하면서 한데 아우러져 살게된다. 그러나 그렇게도 서슬이 퍼랬던 시어머님도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시고 오히려 며느리를 의지하시는 것을 느끼며 연로하신 어머님 앞에 세월의 허무함과 동시에 안쓰러움이 저절로 발동한다. 본인도 늙으면 저리되리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래도 내 며느리라면서 모든 가정사를 상의하시며 다른 사람에게는 못 맡기던 것을 맡겨주심을 보고 가슴이 뿌듯해진다.

(1) 흉보며 닮아 가는 내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람

팔 구년 살으니까 내가 싫어지는거야 왜? 내가 처음 우리 시어머니 가 참 저런 면모가 있을까.... 참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모습을 닮아 가고 있더라 이거야... 내가 우리시어머니 모습을 닮았더라 이거여 그래서 내가 정말 싫어지더라고 내 자신이... 이 한 집밥 한집에서 계속 살다보면 내가 정말 우리 시어머니를 닮아 가는 것 같애..... 어느 날 보니까 나도 우리 시어머니하는 대로 보고 커서 나도 그렇게 되는 것 같구...(중략)... 그리갔고 그때부터 무슨 반항하듯이 우리 시어머니가 굉장히 싫어졌어(참여자 4).

시어머니께서 오래된 물건을 버리지 않고 물건을 쌓아놓는다고 속으로 부글거렸는데 지금와 보니 나도 나중에 써야한다고 자꾸 물건을 쌓아놓는 거야 (참여자 1)

(2) 사그러지는 노부모 앞에 측은지심이 솟아남

어머님처럼 똑같이 늙을 텐데 하는 맘으로 잘 해드려야하는데 하는 맘하고 왜 나를 이렇게 옥죄이는가 하는 맘하고 계속 싸우는거야 ...(중략) 어머니 미운 감정다음에는 너무너무 죄송하고 불쌍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거야(참여자 6).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나한테 의지하는데 이만한 것도...(참여자 1)

이 갱년기 나한테 자기 주장하실 날도 10여년 밖에 안 남았는데 나는 살아야할 날이 몇 십년이 남았는데 그것하나 못 받아들이랴 싶어... 그러다가도

속이 부글부글 끓고 ...(참여자 2)

어 이제야 편안하고 그러지만 지금은 뭐 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지금이야 뭐 어머니 말 마따나 다 늙어가구 당신은 뭐 ... 지금은 뭐 내 마음대로지 뭐. (참여자 4)

(3) 길들여짐으로 더불어 살아감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말씀이 없는 분인데 어머니가 안 계시면 허전하고 어머니가 약한 것 같지만 강한 것 같고 별로 하시는 일이 없지만 사실은 제일 큰 것을 하시는 것 같고....(중략) 내가 공부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 어머니가 계시니까 .....나도 어떤 면에서는 불만을 많이 느낄 수 있지만 어머니가 계셔주니까 내가 편안하게 살수 있다 그런 거가 있지. (참여자 6)

어머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때는 너무 당연하고 원칙적인 말이긴 하지만 그런 말이 우리한테 힘이 되고 지표가 되지. (참여자 4)

십 년정도 되니까 사소한 것 같고 트집잡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생각의 차이로 서로 인정하고 그냥 녹여가 버리는 거야. 서로간에 미운정 고운 '정'이 쌓여야 '정'이라니까 고운 '정'만 가지고 정대가족이 될 수 없어요 미운'정'도 쌓여야지 이분은 내가 평생 모시고 내가 죽을 때까지 모시고 살아야겠다는 사랑 그런 생각이 2-3년 전부터 들더라고 ....(중략) ... 시집식구가 내 집 식구다라는 생각이 3년정도 되면서 느껴지고 이 양반은 내가 평생 모시고 살아야 할 사람 그런 생각이 7-8년 되니까 들더라고 지금은 속상한 소리를 하고 그래도 옛날에는 그것이 오래갔지만 지금은 순간이야 (참여자 3)

우리 시어머니랑 상당한 인연을 갖고 요즘에는 그래서 우리는 인연으로 만난 것이니까 .....그런 걸 느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고 싶고 그런 걸 느끼지. (참여자 5)

(4) 인정받음으로 뿌듯해짐

우리어머니가 나를 좀 믿어 가지고 미국 딸 시집가서 10년이 넘도록 안 갔다가 나 시집와 갔고 가셨어 살림을 맡기고 저음으로(참여자 1).

(중략) 며느리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관념이 깨졌어 서로 힘들었던 것 같애.....(중략) 나를 많이 이해하셔. (참여자 4)

그전에는 의견 표현하면 어머님이 본인 마음대로 하던 것이 뭐든지 나하테 의논을 하게 되는거지 어머님이 내 눈치보고 .... 옛날에는 본인 마음대로 하고 딸하고 마음대로 하고 그랬는데 딸을 마음대로 내버리시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어졌지. (참여자 6)

위의 5가지 본질적인 주제를 확인하였고, 최종적으로 기술하기 전에 다양하게 표현한 문학, 예술작품, 대중매체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들을 한국 여성의 시집살이 경험을 비교하면서 반성하였다. 주제에 입각한 사려 깊은 주의와 함께 연구자는 한국 며느리의 시집살이 경험에 대해서 현상학적으로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면담 도중에 발견된 예비 주제들을 가지고 돌아가 확인하였다.

5.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

밴매넌(1992)은 어떤 글쓰기가 논리적으로 강력하려면 명료해야한다고 하였다. 그것은 살아있는 경험을 설명하는 것, 의미 있는 구조 또는 좀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자료로부터 주제를 분리하고 시집살

이 경험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낱낱이 추출하는데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면담내용을 연구자 자신들이 몇 번 반복하여 읽었으며 질적연구방법론을 같이 학습하였으며 시집살이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 교수와 질적연구에 전문가이신 교수님께 자문을 받았다.

현정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 단둘이서 오붓하게 살아야지 하는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하였으나 남편이 큰아들이라 한동안 같이 살아야한다는 시부모의 바램에 순종하여 동거하며 시어머니과 부딪침이 시작되었다. 행여 살어름이 깨어질까 조심조심 살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화를 내시고 오시며 시댁식구를 불러 들이기 시작하다. 오신 시댁 어른들께서 현정이에게 무조건 어른이니까 잘못을 빌라고 성화를 대신다. 본인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빌기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빌지 않았더니 몹쓸 것을 보듯이 냉대하시는 시어머님 태도에 더 이상 자신이 못 견딜 것 같다. '잘못했어요 어머님.....' 기다리셨다는 듯 당신의 눈에 거슬렸던 점들을 들먹이며 복창 터지는 소리를 하신다. '저는 한다고 했는데 억울해요'라고 되뇌이면서도 다시 괴롭을 당할까 두려워 깊은 한숨을 쉬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어머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말고 ' 시어머님이 하라는 대로해서 얼른 눈에 드는 것이 속이 편하겠다. '아예 나를 포기해야지.. 왜 이리 힘이 드나?'하고 속으로 중얼거려본다.

자식을 낳으니 내편이 있어서 든든하였다. 어느 날 아들 옷을 사왔더니 "너는 이것이 어이에게 맞으리라고 사왔냐 참 제 아들 크기도 모르나", 하시면서 핀잔을 주시면서 "내 손자 옷은 내가 살테니까 이제 내게 맡겨라하시는 어머님의 말씀에 속이 부글거렸지만 억눌렀다. '무엇하나 내 맘대로 할 수가 없구나.'

모처럼 아들 광영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려고 하니 "어디를 가니?" 시어머님 물으신다. 어머님 xx에 가요.그래? 나도 그쪽으로 볼일이 있으니 같이 가자. 우리 광영이 이리 온하시며 광영이 손을 잡고 앞장 서신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 광영이는 애미 너보다는 이 할미를 더 좋아한단다. "아이구 내 새끼야" 모처럼 아들 광영이와 갖고 싶었던 달콤한 시간은 이렇게 사라져 갔다.

시어머님 생신으로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다. "어머니, 생신 축하해요."라고 화사한 웃음을 웃으며 동서가 온다. 잔치가 끝나자 마자 떠나려는 동서들에게 어머님이 이것 좀 싸줘라 저 것 좀 싸줘라하신다. 괜스레 시어머님이 챙기라니 챙기기가 싫다. 다들 떠난 후 이것저것 제 자리에 넣으며 저 동서처럼 봉투 하나 들고 와서 오늘 만 시어머님 비위를 맞추고 가는 날이 있을까? '언제나 나만의 공간을 갖을까 나만의 공간 말이야...'라고 중얼거려본다.

무리를 했는지 몸이 아프지만 일어나 시부모 밥을 챙기면서 아픈 표정을 지어도 시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남편이 "어멈이 아프데요". "병원에 가라고 해" 하며 내일 큰아버님 제사만 걱정하신다. 무슨 제사는 제사야 내가 아파 죽겠는데 제사만 걱정하시는 모습에 '나는 역시 이 집 식구라기 보다는 이방인이야'라는 서러움 아픈 마음이 겨울 세찬 바람처럼 뼈속으로 파고든다. 그런데 입에서 불쑥 "어머님 제가 아픈데 애비가 가면 어떨까요?"라고 말하는 자신에 흠칫 놀라며 두둑해진 자신의 배짱에 다시 한 번 깜짝 놀라다. 세월이 많이 흘렀나보다 그래도 할 말을 하다니, '그럼 어때? 같이 늙어 가는 판에 무얼 더 참아?'하는 배짱이 생겼다.

그리도 꼼꼼하신 시어머님이 지켜었는데 현정 자신이 아들이 가져놓은 옷을 다시 풀어 네 귀퉁이 반듯반듯 접어 다시 놓는 모습을 바라보며 당황하며 '아! 십 여년 세월을 같이 살더니 나도 닮아가는구나!'

저 멀리서 시어머님이 절룩거리시며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니 오늘따라 측은해보인다. 서슬 퍼르르 하시던 모습이 무상한 세월 앞에 저리도 변하다니.. '나도 저리 늙을텐데 불쌍히 여겨서 잘 해드려야지' 라고 맘에 다짐을 한다. 그것도 잠시 어구당창한 뜨집잡기로 날 그리도 힘들게 하더니...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현정의 뇌리에 스친다. 현정이 생일날 시어머님이 "어멈아! 여러가지로 고맙다. 내가 시집살이 시켰다고 생각마라. 너는 내 식구다 싶어 훈련시킨거야 너무 서운해 마라.... 이거 네가 준 용돈으로 네 목거리 만들었다. 항상 차고 다녀라" "아니 어머님.... 감사합니다"

Ⅲ.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중년 여성의 시집살이 경험의 본질을 묘사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밴 매넌의 해석학적 현상학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4단계의 연구과정인 체험의 본질에 집중, 실존적 조사,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 그리고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를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6명의 한국의 서울과 중소도시에 살고 있으며 10년 이상 시집살이를 한 중년 여성들로 2000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심층면담과 관찰을 하였으며 속담, 민요, 민담, 백과사전, 민속사전, 드라마, 문학작품을 통하여 자료수집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체험 본질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한없는 마음 고생으로 삶이 힘듬
   (1) 속이 뒤집히고 기가 꽉 막힘
   (2) 애쓰고 인고함
2) 구속감을 느낌
   (1) 윗 어른 눈치를 봄
   (2) '나'라는 존재가 희미해짐
   (3) 나 자신만의 공간을 그리워함
3) 고독감이 절절히 감지됨
   (1) 극적인 순간에 소외감이 듬
   (2) 하나 될 수 없음에 대한 서운함이 생김
4) 뒷심이 세월 따라 두둑해짐
5) 한데 어우러짐
   (1) 흉보며 닮아 가는 내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람
   (2) 사그러지는 노부모 앞에 측은지심이 솟아남
   (3) 길들여짐으로 함께 살아감
   (4) 인정받음에 대한 뿌듯해짐

본질적인 주제를 기반으로 한국 중년 여성의 시집살이 경험은 글쓰기에도 살펴본 것처럼 중년 여성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노력하지만 동일한 성인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다시금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심적 고통과 시어머니와 힘 겨누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나만이 존재하던 미혼시절의 자신에 대한 상을 부수고 누구의 며느리로서 새로운 상을 정립하기까지의 가슴앓이를 어떻게 대상자가 수용하냐에 따라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며느리가 자신의 존재가 시어머니에게 인정되었을 때 삶의 활력을 얻는 것을 본 연구에서 볼 수 있다.

한편 현세대들에서는 가족에 대한 의식변화와 사회적 변천에 따라 우리나라 고전의 家의식과 孝의식이 약화됨으로 말미암아 시어머니의 권위와 지위가 상실되고 상대적으로 며느리의 지위가 향상되어 가는 실정으로(박성혜, 1995) 10년을 시집살이한 대상자의 세대와 달리 또 다른 시집살이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 세대의 변화된 시집살이의 경험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려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기혼여성의 시집살이 경험에

서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핵가족 화된 현시대에도 여러 가지 개별적인 원인으로 시부모와 동거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런 경우 며느리가 경험하는 경험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둔 가족중재에 활용될 수 있다.

둘째 기존 서구 파라다임에 근거한 가족간호 교육에서 한국적 문화를 바탕으로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간의 경험에 대한 이해는 한국여성의 결혼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인터뷰 당시 40대 이상으로 10년을 시집살이한 대상자의 세대와 급변하는 사회적 영향으로 또 다른 시집살이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 세대의 변화된 시집살이의 경험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참여자의 연령을 확대하여 시부모와의 경험을 연구함으로써 시부모에 대한 경험의 본질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고효정, 김혜영 (1993). 홧병여성에 대한 고찰, 계명간호과학, 3(1).

김용, 이 숙 (1977). 한국의 고부관계. 청림각.

김현정 (2000). 중년남성의 실직경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동아출판사 편집부 (1979). 동아국어사전, 동아교재사.

문진하 (2000) 첫아기가 미숙아인 어머니의 경험.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박사논문

민성길 외 (1989). 홧병의 개념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8(4).

민성길 외 (1991). 홧병과 한, 대한의학협회지, 34(11).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199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3.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박금순 (1982). 주부의 고민. 보이스사.

박금순 (1983). 시어머니의 고민. 보이스사.

박성애 (1995). 며느리가 지각한 고부갈등과 며느리의 결혼 만족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밴매넌 (신경림, 안규남옮김) (1994). 체험연구. 동녘.

서영숙 (1996). 시집살이 노래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송재선 (1995). 여성속담사전. 서울:동문선.

신경림 (2000). 유방 절제술을 경험한 여성 체험연구. 대한여성건강학회, 1(1).

신수진 (1998).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신용하, 장경섭 (1996). 21세기 한국의 가족과 공동체문화. 지식산업사.

신혜숙, 이옥자 (1998). 여성의 정신장애와 홧병에 관한 문헌연구. 동서간호학연구지, 3(1).

양경미 (2002) 재가 노인의 학대와 대처방안 및 학대결과.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논문.

이정숙,김수지외 편저 (2000) 정신건강간호학. 현문사.

이광규 (1994). 한국의 가족과 종교. 대우학술총서 민음사.

이광자 (1996). 홧병 대상자에 대한 정신간호중재 프로그램. 간호과학, 8(1).

이배용 외 (1999).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2. 청년사.

이시형 외 (1989). 홧병의 임상연구(II)-분노반응으

말뿌리 뒤좇기

로서의 홧병. 고의 제12권.
임동권 (1982), 한국부요연구. 집문당.
장효순 (1997). 지체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경험.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재니스 M. 모스, 페기 앤 필드(신경림 역) (1997). 질적간호연구방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최근학 (1987). 한국민담사전. 문학출판공사.
한국민속대사전2 (1991). 한국민속사전 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한국민속대백과사전 (1996). 한국민속사전 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Leininger, M. (1994). Quality of life from a transcultural nursing perspective, Nursing science quarterly, vol 7(1).
Lincoln, Y., & Guba, E.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W. 마르크스 (이길우 옮김) (1999). 현상학. 서광사.
http://mbcweb.mbc.co.kr/drama/see-see/script8-126html
http://mynetian.com/~sms63/송문석%20소설자료/현진건-%20불.html
http://koreannote.pc.kr/9/9-시집살이노래.html
http://aids.hallym.ac.kr/chunchon/kjsp3.html
http://jungari.co.kr/sijo/koje110.html
http://sookmyung.ac.kr/%7Eshinbosa/culture.htm

ABSTRACT
Key Words : Sigipsalee, Van Manen's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The Lived Experience of the Middle Aged Korean Women's Living with Mothers in Law(=Sigipsalee)

Han, Hae Sil* · Kim, Ae Jung** · Yang Boksun***

Purpose: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ssence of those lives who have been living with their mothers- in- law for more than 10years since their marriage by applying Van Manen's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It consists of four steps such as concentration on the nature of lived experience, existential research,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reflection and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writing. **Method:** Six middle aged participants who have been living with mothers- in- law in middle size of cities were interviewed and observed with their written consent for one month from 20, April, 2000 to 20 May 2000. To expand insight by analyzing sayings, folks stories, writings, etymology of sigipsalee relevant to it were collected and reviewed. **Result:** Five essential themes were derived by repeated reviewing the transcription of those interview such as difficulty living with endless heart distress, feeling oppressed, feeling deeply lonely, having a stronger backing as time passes, in turn harmonizing with each other. On the basis of the five essential theme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writing was done as follow. Participants lived lives filled with uneasy feeling from the newly formed relationship among in laws but especially with mothers- in- law. Participants did their best to be acknowledged found that at a significant moment during family event they would be treated as strangers so that they felt isolated and alone. Mothers in laws played a dominant role in most of family decision even buying their children's clothes. Mother in laws rarely complemented them so that they felt inferior as a person. As time passes. Mothers-in-law and daughters-in-law become adjusted to this lifestyle with each other and assumed a more mature relationship which includes a mutual respect thus better harmony. Participants become to have stronger backing so

* Margaret Pritchard University
** Yeojoo Institute Technology
*** Margaret Pritchard University

that they express their opinion to mothers-in-law. With time both of them are getting old, participants show form of pity to their mothers-in- law. Sometimes participant surprise themselves by noticing a change in their behavior to the same pattern the mothers-in-law have showed them. **Conclusion:** Although generalizations have limitations, findings resulting from the study will enrich family nursing knowledge and understanding the problems when living with mothers-in- law in the same house. It will give a cleared view of problems faced by middle aged korean women in the Korean patriarchal culture. Researchers have recommended to study experiences of married young adult korean women's generation and the findings compared with this study to show trends and changes